

그리움을 안고 떠난 손미나의 페루 이야기

페루,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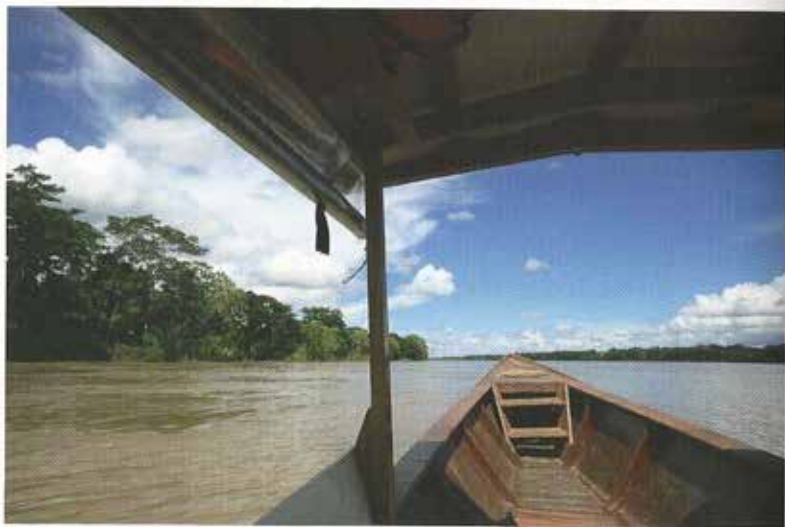
손미나 지음

예다

아마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



모든 것이 난생처음이었다. 그토록 질푸른 하늘과 새하얀 구름, 순식간에 살갓을 태워버릴 것만 같은 햇볕, 높은 습도,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집채만 한 열대 식물,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초록 내음... 뜨거운 태양광을 받아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미세한 흙먼지가 뒤섞여 눈앞의 풍경이 그저 신기루처럼 보였다. 리마에서 소형 국내선 항공기를 타고 한 시간 반을 날아 도착한 그곳은 말로만 듣던 아마존 밀림 지대, 그중에서도 아마존 상류 지역에 해당하는 '푸



천의 얼굴, 아마존, 누군가는 이 표현이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아마존은 그랬다.
그 대자연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을 모두 전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.



과했다.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장화와 방수 점퍼, 랜턴과 모기약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한 뒤 길을 나섰다.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칠혹 같은 어둠 속에 잠겨버린 정글 속을 헤집고 걸었다. 아마존에는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이 많은데, 그렇다고 그 동물들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다. 워낙 습한 지역인데다 비가 내린 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질퍽거렸다.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으로 비집고 나온 나뭇가지나 거미줄을 피해 걷는 일도 쉽지 않았다. 그러나 달빛에 의지해 아마존의

아마존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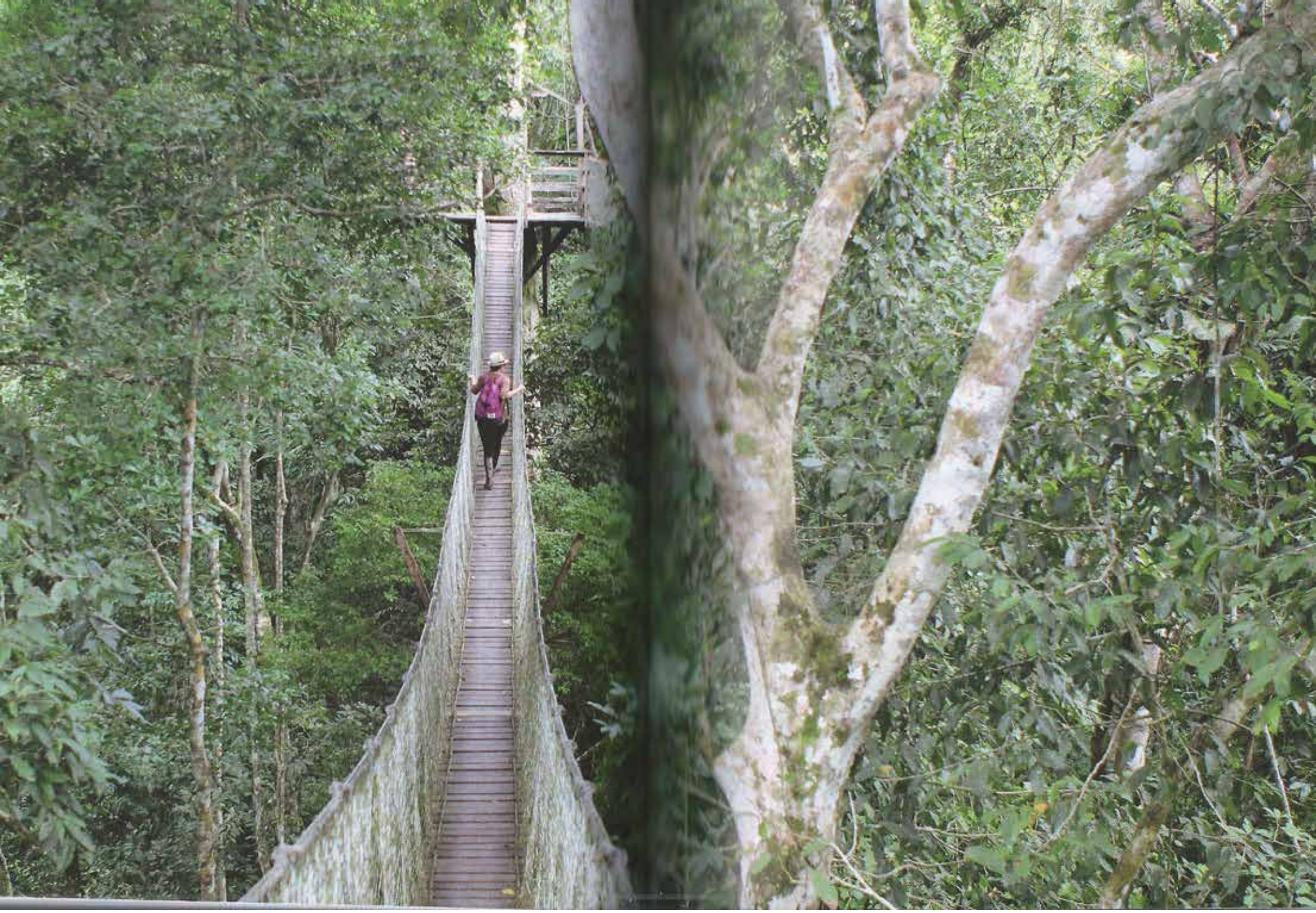
천천히 번졌다 서서히 스러져가는 노을조차

아끼고 또 아끼면서 오래 보고 싶은 곳.

아마존은 진정한 대초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.







A two-page spread from a book. The image shows a boat on a river, surrounded by dense green rainforest. The boat is in the foreground, and the river reflects the surrounding trees. The text is on the left page.

'신의 어머니' 강의 물결을 따라 더 깊은 아마존을 향해 들어가는 길.

키누 위에 몸을 맡긴 그 순간부터 내가 곧 아마존이었고

아마존이 곧 나였다.



있던지 그 와중에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. 그 직원은 우리 둘을 각자의 침대에 눕힌 다음, 나보다 심각한 상태의 레이나에게 먼저 산소 호흡기를 씌웠다. 10분 이상 착용하면 오히려 산소병의 위험이 있다는 데 우리 둘 중 누구도 시간을 재고 말고 할 정신이 아니었다. 결국 그 아저씨는 우리 걸을 지키며 둘 다 산소를 흡입하도록 도움을 주었다.

산소를 들이마시고 나니 신기하게도 서서히 정신이 들었다. 식상한 말 같지만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'산소'의 중요성을 그렇게 뼈저리게 실감한 것은 처음이었다. 레이나는 나보다 시간이 좀 더 걸